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4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1일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윤석열 당선인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당선 이후 첫 광주 방문 … "AI센터 차질 없는 완공 챙기겠다"
주기환 국힘 광주시장 후보, 광주 AI 산업 지원 적극 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지역순회 일정으로 20일 광주시 첨단 3단지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광주를 찾아 "광주가 'AI(인공지능)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첫 호남을 찾은 윤 당선인은 이날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현장을 찾아 "AI센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잘 챙기겠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와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 광주 광산갑 당협위원장,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AI 기술이다"면서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직후와 대선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광주가 'AI 대표도시'가 되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헬멧을 착용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윤 당선인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갔었고, 작년 12월에는 이곳 AI센터 건립지를 찾아왔다. 다시 찾아뵙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면서 "이제 다섯 달 된 것 같은데 작년보다 건물이 많이 올라왔군요"라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전략산업을 결정해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광주는 일찌감치 AI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천12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증센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광주 AI센터 방문에 동행한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 6일 문 권한대행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오셔서 광주가 인공지능과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당부하고 갔다.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다"고 언급한 뒤 "(광주에) 올 때마다 AI 사업을 준비하는 관계자들께서 AI가 미래 광주의 명물이 가진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해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 "저도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를 거쳐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조선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불산단 조선산업은 한때 생산액만 8조 2000억원에 달했고 고용 인원만 2만 7000명에 이르는 등 전남의 핵심 산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액이 1조 5000억원 줄고 고용 인원도 7000명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고창회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과 대표적 선박 블록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선박 용접 현장과 지난해 발생한 고압선 단전사고 현장 등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조선 용접공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노후화된 산단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또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국가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구축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대불산단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전봇대를 제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고 전신통신 선로 때문에 대형 선박 블록을 운송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예산을 검토한 후 대불산단의 전선 지중화 등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불모지' 광주·전남 지방선거 성적표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1→7명 '격세지감'
지방의원 후보 31명…'당선권' 비례 경쟁 치열

국민의힘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모지로 여겼던 광주·전남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둘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등이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인데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지역 민심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4년 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통틀어 기초단체장 1명의 후보를 낸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역단체장에는 광주시장에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전남지사에 이정현 전 의원이 공천됐다.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는 3명, 전남은 4명이다. 광주에서는 동구청장에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북구청장에 강백룡 전 북구 부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국민의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강현구 건축사는 합당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신용운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이 여수시장 후보로,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 영암군수 후보로, 김정연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자문위원이 진도군수 후보로, 김유성 탐정법인 대표가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한다.

광역·기초의원에는 광주 17명, 전남 1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특히 정당 득표수로 의석이 배분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광주 4명, 전남 6명이 몰렸다. 기초의원 비례도 광주 2명, 전남 5명이 경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따라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남 여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1명만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텃밭이라는 지역 정서를 감안했을 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승리는 힘들 수 있겠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두고 지방의원 비례 당선자들을 배출하는 등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 성적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저변 확대를 꾀하면서 민심을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2면
치솟는 물가에 터지는 갈등…곳곳 아우성 ▶6면
KIA 김도영, 승리 부른 무모한 질주 ▶18면